

Lesson 22

예수님 만이 답이다.

본문: 요한복음 5:1-9

본문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항상 해결 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항상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만 들어가야 하니 그 경쟁은 상상할 수 없이 치열하다. 인간애를 발휘하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휴머니즘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든든한 다리를 가진 소경과 성한 눈을 가진 중풍병자가 서로 협조하여 물이 동할 때 먼저 못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먼저 못에 들어가야 할 것은 난제 일 수밖에 없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찾아 오셨다. 예수님 만이 답이다.

여기에 찾아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3가지로 찾아 올 수 있다.

첫째, 전지하신 예수님 둘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셋째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I. 전지하신 예수님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처지를 아셨다. 38년 동안 그는 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었고, 물이 동한다고 해도 스스로는 물에 들어 갈 수 없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시편 139:2-4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나의 딱한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때로 건강 때문에,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그 어려운 상황을 누구도 이해 할 수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어쩌면 쉽게 해결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문제, 시대에 대한 아픔등은 누구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고통을 앓고 살아 가야 한다.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다. 요즈음 나는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진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곤 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지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

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모른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맡기자.

II. 동정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 가신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 오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 위선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38년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를 찾아 갔겠는가? 우리가 누군가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내기까지 찾는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비유인지 모른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6절에서 그가 병든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주목해보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예”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의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신다.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치유는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이거나 신실한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 같다. 단지 그의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비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것이다. 즉,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가끔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할 때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의 지극한 동정심을 보여 주신다. 목자 없는 양떼임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신다.

예수님의 동정심-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대한 깊은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의 딱한 형편을 알고 안타까워 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완전히 잊어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 아니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등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탓하시거나 죄를 책망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

Ⅲ.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의 지식이 완전하고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이 크실 뿐 아니라 권세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의 권세는 즉각적이고 주권적이다. 8-9절: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임함을 의미한다. 그가 말할 때 병든 근육과 뼈가 “즉시” 순종한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4장 52~53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권적 권능이 드러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확히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뜨거운 사랑의 동정심을 보인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문제 해결은 불 가능하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비정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와 동정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능력이 한 없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전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된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암울하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만이 답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 가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위로와 도움을 얻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함으로 개인적인 난제 뿐 아니라 모든 난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을 힘써 전파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믿는다.